

제 1 교시

국어 영역 (B형)

[1~3] 다음은 유연근무제에 대한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최근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제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그것인데요, 이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기업 조직에 유연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고용의 불안정성을 들어 이 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토론을 통해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 성: 찬성 측 입론하겠습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1위 국인 룩셈부르크 12만 4,377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OECD 평균의 79.9% 수준으로 회원국 중에서 하위권이라 합니다.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근로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 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 전체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따라서 연간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유연근무제입니다. 먼저 유연근무제를 시행한 영국의 사례를 보면 업무 만족도 및 몰입도가 높아져서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장시간 근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실업 문제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후 최대 수혜자는 일하는 여성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는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가 시행되면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 일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 기능으로 볼 때, 유연근무제는 더욱 확대 시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자: 네,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반대 측 입론 들어보겠습니다.

반 대: 반대 측 입론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연근무제가 상황에 따라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하고 좋은 제도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정규직의 안정된 일자리를 시간제, 파트타임제로 나누게 되어 통계 수치상 일자리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오히려 고용의 질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만 높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찬성 측 입론에서 말씀하신 일하는 여성과 관련해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마음 편히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수요를 정책 및 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연근무제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야하는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을 적극 반대합니다.

1. 위 토론에서 양측 모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안정된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 ②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이 안전해야 한다.
- ③ 기업에서 여성 구직자들을 적극 채용해야 한다.
- ④ 근로 시간의 단축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⑤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2. ‘찬성’과 ‘반대’의 입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찬성: 구체적 수치를 들어 연간 근로 시간과 노동 생산성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찬성: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유연근무제가 직장 여성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반대: 정책 및 제도의 미비함을 들어 현실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반대: 제도 시행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상대방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3. <보기>는 위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입장과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주로 시간제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시간제근무자 중 78.5%가 임시·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구소 —

- ① 찬성: 유연근무제 도입이 노동 생산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② 찬성: 유연근무제로 실직 여성이 늘고 있다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③ 찬성: 유연근무제로 근로자들의 업무 만족도 및 몰입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④ 반대: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하면 고용의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⑤ 반대: 유연근무제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군.

[4~5]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진을 보여 주면서) 여러분, 무슨 사진인지 알겠어요? (대답을 듣고)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네요. 바로 목 디스크 질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목이 빠근하거나 통증을 느낀 적이 있지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잘못된 자세 때문에 이 질환이 많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 디스크 질환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여 주면서) 척추에는 뼈와 뼈 사이에서 몸의 충격을 흡수하는 추간판이 있는데, 이것을 디스크라고도 합니다. 여러 원인으로 퇴행된 목 근육과 인대는 목뼈를 제대로 받쳐 주지 못하게 되어 목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죠. 이는 목 디스크의 퇴행으로 이어지고 퇴행된 디스크가 척추 뼈 사이에서 빠져 나와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것이 목 디스크 질환입니다.

목 디스크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자세로 인한 척추 변형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목의 근육과 인대를 퇴행시킵니다. 또 학업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는 목 주변의 근육을 경직시키고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여 목 디스크에 부담을 증가시켜 질환을 유발하게 되지요. 최근에는 IT기기 사용의 급증으로 젊은 층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 디스크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꼿꼿이 하는 바른 자세 유지가 중요합니다. IT기기의 사용 시간은 줄이고, 공부하다가도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스트레칭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목 디스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려 드릴까요? (대답을 듣고) 다들 좋아하시네요. 제가 준비한 것은 열 가지이지만 발표 시간이 정해져 있어 두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대학 병원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며) 먼저 머리 젖히기입니다. 다음은 목 옆으로 젖히기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자세와 과도한 IT기기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목 디스크 질환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다음은 학생이 발표하기 전에 작성한 사전 계획이다.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발표 유형: 정보 전달을 위한 말하기 ①
2. 청중 분석
 - 가. 대상: 학급 친구들
 - 나. 사전 지식: 목 디스크 질환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했을 것임 ②
3. 내용 조직
 - 가. 도입: 화제 제시 및 배경 설명
 - 나. 전개
 - 목 디스크 질환 설명
 - 목 디스크 질환의 원인 제시
 - 잘못된 자세로 인한 척추 변형
 -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디스크의 손상 ③
 - 심한 스트레스 및 IT기기 사용의 급증
 - 목 디스크 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안내 ④
 - 다. 정리: 발표 내용 요약 ⑤

5. 위 발표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군.
- ② 다양한 자료와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있군.
- ③ 어려운 전문 용어를 다른 개념에 빗대어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군.
- ④ 청중에게 질의하고 그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고 있군.
- ⑤ 주어진 시간에 맞게 발표하기 위해 계획된 발표 내용을 적절하게 재구성하고 있군.

6. 다음 건의문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장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회장 박혜진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매점이 없어 마땅히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에서는 그 해결 방안으로 빵을 판매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1교시 쉬는 시간에 복지관에서 만든 빵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교시 쉬는 시간에만 팔기 때문에 배가 불러 점심 급식을 적게 먹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싼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빵을 공급할 수 있고 빵 판매 수익금은 복지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빵 판매는 학생들의 아침밥을 챙겨 주고 복지관도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교문 밖으로 간식을 사러 나가는 학생들의 불편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달 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주시면 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자 하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가 항목		예	아니요	
내용 생성 및 선정	건의의 목적이 드러나 있는가?	✓		...①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		...②
내용 조직	‘문제 상황-해결 방안-기대 효과’라는 순서에 따라 글을 쓰고 있는가?	✓		...③
표현	비유적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		...④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		...⑤

[7~8] <보기 1>은 ‘탄소 발자국 줄이기’를 주제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개요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1>

(가) 인터뷰 자료

“탄소 발자국은 지구의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인 탄소의 총량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연료, 전기, 용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구의 평균 온도를 높여 환경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탄소 발자국의 심각성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탄소 라벨링 제도나 탄소 포인트 제도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통계 자료

1. 탄소 발자국 관련 인식 조사

	탄소 발자국 개념	탄소 라벨링 제도
알고 있다	3%	13%
모른다	97%	87%

2. 생활 속의 탄소 발자국

생활용품	탄소 배출량	교통수단 (1km 운행 시)	탄소 배출량
비닐봉지	10g	지하철	1.53g
종이 쇼핑백	12g	기차	20g
컴퓨터 1시간 사용	90g	버스	27.7g
휴대 전화 1일 사용	306g	자가용	210g

(다) 신문 기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소 라벨링 제도나 탄소 포인트 제도는 국민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이 제도를 적극 알리려는 정부와 기업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 원인은 이 제도를 실천할 때 생기는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태국은 탄소 라벨링을 식품과 생활용품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제품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가공 공정을 도입한 기업에는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를 늘려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구매 동기를 유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 기 2>

○ 서론 : 논의의 필요성 ㉠

○ 본론

1. 문제점 분석

가. 개인적 측면 ㉡

나. 사회적 측면 ㉢

2. 해결 방안 제시

가. 개인적 측면 ㉣

나. 사회적 측면 ㉤

○ 결론 :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 촉구

7.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탄소 발자국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다룬다.

② (가)와 (나)를 통해 사람들이 탄소 발자국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 탄소 배출 문제를 심화한다는 점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에서 ‘탄소 발자국에 대한 개인의 인식 부족’을 문제로 다룬다.

③ (다)에서 제도적으로 탄소 라벨링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동기 부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에서 ‘탄소 라벨링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룬다.

④ (나)-2를 통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탄소 발자국 줄이기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에서는 ‘탄소 포인트 제도 활성화 대책 수립’을 다룬다.

⑤ (다)의 태국의 탄소 라벨링 사례에서 우리나라 제도의 보완점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에서 ‘탄소 라벨링 제도의 보완 및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다룬다.

8. <보기 2>의 결론의 일부를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조 건>

○ ‘(나)-2’를 고려한 개인의 노력을 다룰 것.

○ 비유적 표현과 설의적 표현을 모두 활용할 것.

- 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휴대 전화 사용을 자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요?

②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제도는 시름시름 앓아가는 지구를 살립니다.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지켜볼까요?

③ 우리들의 영원한 쉼터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합니다.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기. 이것만으로도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④ 매일 켜두는 전등, 항상 꽂혀 있는 가전제품의 플러그, 장바구니 대신 쓰는 일회용 비닐봉지에서 탄소 발자국은 오늘도 크고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 줄이기에 적극 동참합니다.

⑤ 열병을 앓고 있는 지구를 치유하기 위해 온 국민의 참여를 권유하는 탄소 발자국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탄소 라벨링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지 않을까요?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 신문 기사를 읽고 친구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글을 써 보았다.

□ **신문 기사**

스마트폰은 누구나 사용하는 필수품이 되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게임이나 SNS 기능만 편중되게 사용하고, 사용 시간 또한 조절하지 못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학생의 글**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자.

요즘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의 여러 재미있는 기능들에 푹 빠져 있다 보면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이 성적을 떨어뜨리는 ㉠ 주역이라고 여기시고 우리들의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신다.

㉡ 그리고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나쁜 친구일 뿐일까? 사실 우리가 ㉢ 스마트폰을 적당히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목적에 맞게 쓴다면 스마트폰은 유용한 도구임이 분명하다.

스마트폰의 인터넷 접속 기능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이 학습하는 데 ㉣ 쓰여진다면 우리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일정을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한다면 스마트폰 중독도 막고, 학습 시간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도 하루에 한 시간은 가족과 대화를 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회복해야 한다.

‘좋은 약이라도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스마트폰이 독이 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9.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 ②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다.
- ③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 ④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여 과정을 드러낸다.
- ⑤ 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범’으로 바꾼다.
- ② ㉡은 앞 문단과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그렇다면’으로 바꾼다.
- ③ ㉢은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적당히 사용하고 목적에 맞게 쓴다면’으로 고친다.
- ④ ㉣은 피동 표현이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쓰여진다면’으로 고친다.
- ⑤ ㉤은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11. 다음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한 것은?

의문

‘자리를 바꿔(○) 앉았다.’와 ‘잔금을 치뤄(×) 두었다.’에서 ‘바꿔’와 달리 ‘치뤄’의 표기가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

탐구

(1) 각 단어의 기본형을 찾아 활용 형태를 분석해 본다.
 ◦ 바꾸-(다) + -어 → 바꾸어 → 바꿔
 ◦ 치르-(다) + -어 → 치러

(2) ‘치러’와 같은 형태로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본다.

㉠

↓

결과

‘치르다’를 ‘바꾸다’와 같이 어간이 ‘ㄷ’로 끝나는 사례와 혼동하였기 때문이다. ‘치르-’는 어간이 ‘-’로 끝나는 용언이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가 탈락한다.

- ① 할머니께서 아침에 동생을 깨워 주셨다.
- ②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가 놓았다.
- ③ 오늘은 가족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다.
- ④ 언니의 얼굴이 오늘따라 몹시 하얗게 보였다.
- ⑤ 오빠가 하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 보았다.

12. <보기>는 ‘끝말잇기’ 놀이에서 제시된 단어들이다. 표준발음법을 참고할 때, 단어의 표기대로만 발음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예의 → 의의 → 의무 → 무예 → 예절 → 절의

표준 발음법

- ‘ㅈ, ㅊ, ㅋ, ㆁ, ㄷ, ㄱ, ㄴ, ㄹ, ㄷ, ㄱ, ㄴ, ㄹ’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 다만 2. ‘예, 레’ 이외의 ‘ㄷ’는 [ㄷ]로도 발음한다.
 예 지혜[지혜/지혜]
-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ㄷ]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예 주의[주의/주이]

- ① 예의, 의의, 의무
- ② 예의, 무예, 절의
- ③ 의무, 무예, 예절
- ④ 의의, 의무, 무예
- ⑤ 무예, 예절, 절의

13.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제는 비와 바람이 많이 불었다.
→ 어제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
 - ② 너는 반드시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 너는 절대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 ③ 전체가 모여 회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체가 모여 회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④ 문제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
→ 문제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 ⑤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사회악을 뿌리 뽑아 근절해야 한다.
→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사회악을 근절해야 한다.

14. <보기>의 예문을 통해 문장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나는 그를 안다.
ㄴ. 너는 고민할 필요 있다.
ㄷ. 방 안에 있다.
ㄹ. 늑대가 양을 물었다.
ㅁ. 그는 옳은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선다.

- ① ㄱ : 반의어를 사용한 반의 관계 문장으로 ‘나는 그를 모른다’를 쓴다.
- ② ㄴ : 부정 표현을 사용한 반의 관계 문장으로 ‘너는 고민할 필요 있지 않다’를 쓴다.
- ③ ㄷ : 반의 관계에 있는 문장으로 만들면, ‘방 안에 없다’ 외에 ‘방 밖에 있다’도 가능하다.
- ④ ㄹ : 피동 표현을 통해 유의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만들면, ‘양이 늑대에게 물렸다’가 된다.
- ⑤ ㅁ : 관용적 표현을 통해 유의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만들면, ‘그는 옳은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선다’가 된다.

15. <보기>의 ㉠~㉤에 나타난 심리적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어미를 사용하여 추정, 감탄, 단정, 확인, 의지, 전달 등의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영희: 너 오늘 산에 간다고 했잖아. 오늘 간 거 ㉠ 맞지?
철수: 아니, 못 갔어. 내일은 꼭 가고 ㉡ 말했어.
영희: 그럼 너희 형은?
철수: 아마 ㉢ 갔을걸. 아까 엄마 말씀이 ㉣ 갔다더라고.
영희: 우와. 너희 형은 정말로 ㉤ 대단하구나.

- ① ㉠ : 확인 ② ㉡ : 의지 ③ ㉢ : 추정
- ④ ㉣ : 단정 ⑤ ㉤ : 감탄

16. <보기>를 읽고 중세 국어의 의문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의문문에는 청자에게 가부(可否)를 묻는 판정 의문문과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 있다. 중세 국어의 경우, 판정 의문문에는 ‘-가’, ‘-너’ 등의 어미가 쓰이고, 설명 의문문에는 ‘-고’, ‘-뇨’ 등의 어미가 쓰인다.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나다’의 특수한 의문형 어미가 쓰인다.

ㄱ. 이 썩리 너희 종가 (이 딸이 너희들의 종이나?)
ㄴ. 이제 엇더혼고 (이제 어떠하냐?)
ㄷ. 네 모르던다 (너는 모르느냐?)
ㄹ. 네 엇데 안다 (너는 어떻게 아느냐?)

- ① ‘ㄱ’의 ‘이’ 대신 ‘엇던’이 쓰이면, ‘종가’를 ‘종고’로 바꿔야겠군.
- ② ‘ㄴ’의 ‘엇더’ 대신 ‘평안’이 쓰이면, ‘혼고’를 ‘혼가’로 바꿔야겠군.
- ③ ‘ㄴ’과 ‘ㄹ’은 청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이군.
- ④ ‘ㄷ’의 ‘너’ 대신 3인칭인 ‘그’가 쓰이면, ‘모르던다’를 ‘모르던고’로 바꿔야겠군.
- ⑤ ‘ㄷ’과 ‘ㄹ’을 보니, 주어가 2인칭인 경우의 의문형 어미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에 따른 구분이 없군.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책을 읽을 때는 모름지기 의심이 있어야 하니, 의심이 있어야 학문이 진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주자(朱子)는 ‘책을 읽으면서 크게 의심하면 크게 진보한다.’라고 하였고, 또 ‘처음 읽을 때는 의심이 없다가 그 다음에는 점차 의심이 생기고 중도에는 구절 구절 의심이 생긴다. 이런 과정을 한 차례 거친 뒤에는 의심이 점차 풀려서 두루 꿰어 통하게 되니, 이러해야 비로소 학문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일대 단안(斷案)*이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저 성현의 말씀은 모두 평이(平易)하면서도 명백하니, 너무 천착*해서 별다른 뜻을 찾다가 스스로 혼란 속에 얽혀 들어서는 안 됩니다. 퇴계 선생(退溪先生)은 ‘책을 읽을 때는 별다른 뜻을 깊이 찾을 필요가 없고, 본문에서 현재 있는 뜻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적당(的當)하고 쉬우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문에는 진실로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후세 사람들은 해석할 때 반드시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 보고서 가장 근사한 것을 취합니다. 지금 그대가 책을 읽을 때 경전의 뜻과 견해가 다른 것이 있거든 그 견해가 다른 곳에 나아가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헤아려 보고 그 대목을 가만히 읊조리며 생각해 보면 절로 변별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사로운 선입견을 가슴 속에 걸어두고서 도리어 선유(先儒)*의 학설을 가지고서 자기 견해에 맞추려 한다면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거든 자기 생각대로 글을 쓸 것이지 무엇하러 애써 옛 성현의 책을 읽습니까.

— 안정복, 「권철신의 별지에 답함」 —

* 단안: 어떤 사항에 대한 생각을 딱 잘라 결정함. 또는 그렇게 결정된 생각.

* 천착: 어떤 원인이나 내용 따위를 따지고 파고들어 알려고 하거나 연구함.

* 선유: 옛 선비. 또는 선대(先代)의 유학자.

17.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의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독서 능력에 맞게 독서 분량을 조절하며 읽는다.
- ② 책을 읽어 가는 과정에서 의문을 품으며 읽는다.
- ③ 다양한 참고 도서를 찾아 비교하며 읽는다.
- ④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며 읽는다.
- ⑤ 글의 내용을 요약하며 읽는다.

18.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나’에게 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나는 연암 박지원의 기행문인 『열하일기(熱河日記)』 중,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를 읽었어. 이 글은 필자가 강을 아홉 번 건넌 경험을 통해,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눈과 귀로 지각한 외물(外物)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어. 필자는 강물을 건너는 데 눈과 귀가 방해가 된다고 하였지만, 나는 오히려 강을 건널 때 눈과 귀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기관을 활용해야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 ① 책을 읽을 때에는 책에 담겨 있는 본래의 뜻을 헤아리며 읽어야 한다.
- ②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가 내용을 전달하는 데 적절한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 ③ 독자는 필자의 생각을 다른 관점으로 바꾸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며 읽어야 한다.
- ④ 글의 내용이나 필자의 생각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 ⑤ 글의 종류를 고려할 때, 전문과 감상을 구분하여 여정에 따른 전문에 주목하여 읽어야 한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양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영혼·정신·의식·마음 등으로 인간을 이해하고자 했다. 몸을 종속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이와 달리 몸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고자 한 학자들이 있었는데, 푸코와 ㉠ 메를로퐁티가 그들이다.

우리는 지하철에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앉아 있는 자세만 보아도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세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푸코는 구성주의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로 우리의 몸이 어떻게 규율화되는지를 ㉡ ‘몸-권력’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푸코는 인간의 몸이 정치·사회적 권력에서 요구하는 행동 양식을 따르게 된다고 보았다. 푸코에 따르면 학교, 군대 등의 근대적인 정치·사회 조직이 통제된 일람표를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반복적인 훈육을 통해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체화시킨다. 개인들은 모두 어떤 식으로든 규정된 행동 양식을 따르게 되고, 이러한 규제는 몸에 각인되며 몸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지하철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자세 차이도 이러한 정치·사회적 권력의 요구가 하나의 행동 양식으로 체화된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푸코는 우리의 몸이 어째서 규율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학자는 메를로퐁티이다. 그는 ㉢ ‘몸-주체’의 개념을 제시하여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메를로퐁티는 몸과 정신은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에의 존재’로서의 우리는 세계에서 의도를 가지고 세계와 관계 맺으며 살고 있는 몸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인 세계에서 삶을 전개하기 위해 습관을 형성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능숙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습관을 유기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행위, 즉 실존적 행위로 본 그는 인간의 습관은 사회성 및 역사성을 띤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세계에의 존재’라고 말할 때, 이 세계는 우리의 물리적 환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문화까지 포함하는 세계, 인간적인 세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 존재는 세계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주체로 그 세계와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의미를 생산해 낸다고 보았다.

몸을 행위의 주체로 파악하여,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입장은 서로 통하지만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우선 푸코는 정치·사회적 권력에 입각하여 몸과 행위를 이해하는 데 비해, 메를로퐁티는 실존성에 입각하여 몸과 행위를 이해한다. 둘째, 푸코는 몸의 불안정성과 변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해, 메를로퐁티는 몸-주체가 습관으로부터 안정성을 끌어낸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푸코에 의하면 인간에게 안정적인 것은 없으며 규율이 변화하는 시기에 인간의 몸은, 몸을 파헤치고 분해하며 재조립하는 권력 장치 속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변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메를로퐁티는 인간의 몸은 행위를 통해 세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행위가 습관화되면서 안정성을 얻는다고 보았다.

19. 윗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 ②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기 위해
- ③ 새로운 이론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성립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 ④ 상식적인 개념을 제시한 후 그것과 대립되는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
- ⑤ 어떤 학자가 주장한 이론을 소개하고 그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2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세계를 긍정적으로, ㉡은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 ② ㉠은 외부와 몸의 관계를 우연적인 것으로, ㉡은 필연적인 것으로 본다.
- ③ ㉠은 세계에 반응하는 주체의 의도에, ㉡은 세계에 의해 변화된 결과에 주목한다.
- ④ ㉠은 인간을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로, ㉡은 인간을 현실에 순응하는 존재로 보는 관점이다.
- ⑤ ㉠은 규제에 의해 몸이 규율화되는 과정에, ㉡은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주목한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고등학생 A군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타셨다. A군은 학교에서 배운 경로효친 사상이 생각나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다.
- 국제면허증이 있는 회사원 B씨는 지난 달 일본으로 출장을 가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하였다. 일본의 차량 진행 방향이 한국과 반대라는 것을 잊고 무의식적으로 상대방 차선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 ① ‘푸코’는 A군이 자리를 양보한 것을 세계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행동이라 보겠군.
- ② ‘푸코’는 B씨가 사고 낼 뻔한 것을 몸이 세계와 관계 맺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군.
- ③ ‘메를로퐁티’는 A군의 행동에 대해 정치적 의도와 관련 있는 행동이라 여기겠군.
- ④ ‘메를로퐁티’는 A군의 행동 이유를 몸에 각인된 규제가 몸을 통해 실현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겠군.
- ⑤ ‘메를로퐁티’는 B씨가 사고 낼 뻔한 것을 기존에 형성했던 습관이 달라진 환경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겠군.

22. ㉢의 입장에서 <보기>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체는 정신이 자신을 드러낼 때에만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런 점에서 신체는 단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불과하다.

- ① 인간 존재를 정신과 신체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까?
- ②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 아닐까?
- ③ 우리가 가져야 할 철학적인 관심은 몸을 초월한 의식 세계이어야 하지 않을까?
- ④ 정신은 신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닐까?
- ⑤ 신체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신을 신체가 담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아닐까?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는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모두의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적어도 한 사람의 상황이 나아져 만족도가 커진 상황을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파레토는 경제적 효율을 따져 최선의 상황을 모색하는 이론을 만들었고, 그 중심에는 ‘파레토 개선’, ‘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이 있다.

갑은 시간당 500원, 을은 1,000원을 받는 상황 A와, 갑은 시간당 750원, 을은 1,000원을 받는 상황 B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파레토에 의하면 상황 B가 을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으면서 갑이 250원을 더 받을 수 있기에 상황 A보다 우월하다. 즉 상황 A에서 상황 B로 바뀌었을 때 아무도 나빠지지 않고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상황 A에서 상황 B로의 전환을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고,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파레토 최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파레토 최적은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계 또한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시간당 500원을 받고 을이 시간당 1,000원을 받는 상황에서 갑과 을 모두의 임금이 인상되면 이는 파레토 개선이다. 그러나 만약 갑은 100원이 인상되고 을은 10원이 인상되는 상황과 갑은 10원 인상되고 을이 100원 인상되는 상황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파레토 이론은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파레토 최적은 자유 시장에서 유용한 경제학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특정한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갑은 시간당 500원, 을은 1,000원을 받는 상황 A에서 갑은 시간당 750원, 을은 1,000원을 받는 상황 B로의 전환에 대해 협의한다고 가정하자. 을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만족도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 상황 전환에 대해 별로 마음 내켜 하지 않을 것이나 갑은 250원이나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갑이 을에게 자신이 더 받는 250원 중에서 100원을 주기로 제안한다면 을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상황 B로 전환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파레토 최적은 (㉠)을/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가치 있게 평가받고 있다.

2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레토 최적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② 파레토 이론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파레토 이론의 한계와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 ④ 파레토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 ⑤ 파레토 최적의 상황을 파레토 개선과 관련지어 밝히고 있다.

24. 윗글을 통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영희는 사과 6개, 철수는 배 6개를 갖고 있다. 철수는 사과에서 얻는 만족도가 배에서 얻는 만족도의 2배이고, 영희는 사과와 배에서 얻는 만족도가 동일하며 영희와 철수 모두 서로의 만족도를 잘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 철수는 자신의 배 6개를 영희의 사과 6개와 교환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영희는 이에 반대하고, ㉡ 자신의 사과 중 3개를 철수의 배 6개와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철수가 반대하여, 영희는 마지막으로 ㉢ 자신의 사과 가운데 4개를 철수의 배 6개와 교환하자고 제안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제안을 철수가 수용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최초의 상황		㉠		㉡		㉢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영희	6개	0개	0개	6개	3개	6개	2개	6개
철수	0개	6개	6개	0개	3개	0개	4개	0개

- ① ㉠에 대해 영희가 반대한 이유는 철수의 만족도는 최초에 비해 2배로 증가하지만, 영희의 만족도는 최초와 같기 때문이다.
- ② ㉡에 대해 철수가 반대한 이유는 영희의 만족도는 최초에 비해 1.5배 증가하지만, 철수의 만족도는 최초와 같기 때문이다.
- ③ ㉢에 대해 서로 합의한 이유는 영희와 철수의 만족도 모두 최초에 비해 증가하였고,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 ④ 최초의 상황이 ㉠나 ㉡로 바뀌어도 모두 파레토 개선으로 볼 수 있다.
- ⑤ ㉠~㉢ 중 영희가 얻을 수 있는 만족도는 ㉢에서 가장 크며, 철수 역시 그러하기에 ㉢를 파레토 최적으로 볼 수 있다.

25.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택의 기회가 많을수록 이익은 줄어드는 경우
- ② 경제 주체 간의 타협보다는 경쟁이 중요한 이유
- ③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상품 가격이 결정되는 상황
- ④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 이기적인 태도가 필요한 이유
- ⑤ 모두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서 효율을 증가시키는 상황

[26~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마철이 되면 자주 ‘번쩍’ 하는 번개와 함께 ‘우르릉 쿵’ 하는 천둥소리가 울려 퍼지는 자연 현상을 볼 수 있다. 번개는 대기 중에서 대규모 전류가 흐르는 현상으로 구름과 지면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나는 벼락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번개와 천둥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

벼락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란운, 그리고 수증기의 증발이 필요하다. 온난 습윤한 대기가 지표면의 불균등한 가열로 인해 강한 상승기류로 발달하면 적란운이 형성된다. 동시에 공기 중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게 된다. 수증기는 상승하면서 냉각되어 작은 물방울로 변하고, 열기 시작하면서 팽창하여 양전하를 띤 바깥 껍질이 깨져 흩어지게 된다. 양전하를 띤 상대적으로 가벼운 얼음 조각은 상승 기류에 의해 구름 위로 더 상승하고, 음전하를 띤 내부의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방울은 무게로 인해 적란운 하단부로 내려오게 된다. 한편 지표면의 전하는 고른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적란운이 발달하면서 하단부에 모인 음전하를 띤 물방울로 인해 지표면의 전하가 밀려나면서 상대적으로 양전하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적란운이 발달하게 되면 지표면과의 전위*차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둘 사이에 섬광이 발생한다. 이것이 벼락이다.

한편 번개가 발생하면 공기는 즉시 과열된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온도가 무려 33,000℃로 상승하여 고온이 된 공기가 팽창한다. 그러면 주변의 공기가 압축되어, 고밀도인 부분과 저밀도인 부분이 생긴다. 이 차이가 ‘충격파’라는 파동이 되어 공기 속에서 전해진다. 즉 공기가 단기간에 데워지면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음파로 듣게 되는 천둥이 된다. 번개는 바로 보이지만 음파인 천둥소리는 번개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 약 340m/s의 속도로 공기 속을 이동하므로 나중에 들린다. 번개와 천둥은 거의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번개 발생 이후 천둥소리가 들리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면 번개가 어느 정도 먼 곳에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있다. 만약, 번개가 친 후 5초 뒤에 천둥소리가 들렸다면 번개가 친 곳은 약 1,700m 떨어진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전위: 전기장 내에서 단위 전하가 갖는 위치 에너지. 특히 전기장 내의 두 점 사이의 전위의 차이를 전위차 또는 전압(Volt)이라고 한다.

2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번개가 발생하면 충격파가 생긴다.
- ② 번개보다 천둥이 더 먼 곳에서 발생한다.
- ③ 소리와 빛의 속도 차이로 천둥소리가 크게 들린다.
- ④ 벼락은 습한 공기와 지표면의 균등 가열에 의해 발생한다.
- ⑤ 지표면의 양전하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적란운이 발생한다.

27. <보기>는 번개를 발생시키기 위한 모의 실험이다. <보기>를 [A]와 관련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① 벨트가 작동하기 전, 두 금속구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이다. 벨트가 작동하면 벨트 하단에서 마찰 전기가 발생하여 큰 구에서 이동해 온 중성의 전하는 양전하와 전자로 분리된다.

② 벨트를 따라 양전하는 큰 구 쪽으로 이동하고, 전자는 도선을 따라 작은 구 쪽으로 이동한다.

③ 벨트가 반복하여 작동하면서 큰 구에는 양전하가 늘어나 (+)극으로, 작은 구에는 전자가 늘어나 (-)극으로 유도된다.

④ 두 금속구 사이에 전위차가 점점 증가하여 ⑤ 둘 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나게 된다.

- ① ①에서 두 구가 중성의 전하를 띠는 것은 적란운이 발달하기 전의 상황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②은 공기 중의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③은 적란운이 발달하면서 적란운 하단과 지표면이 서로 다른 전하로 유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④은 적란운 하단과 지표면 사이에 전위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⑤은 적란운과 지표면 사이에서 벼락이 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화 촬영 시 카메라가 찍기 시작하면서 멈출 때까지의 연속된 촬영을 ‘쇼트(shot)’라 하고, 이러한 쇼트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연극의 ‘장(場)’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씬(scene)’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씬이 연결되어 영화의 전체 흐름 속에서 비교적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을 ‘시퀀스(sequence)’라 일컫는다.

시퀀스는 씬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에피소드 시퀀스’와 ‘병행 시퀀스’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에피소드 시퀀스는 짧은 장면을 연결하여 긴 시간의 흐름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의 삶을 다룬 영화의 경우, 주인공의 생애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특징적인 짧은 장면을 연결하여 인물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병행 시퀀스는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둘 이상의 별개 사건이 교대로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범인을 추격하는 영화의 경우, 서로 다른 공간에서 쫓고 쫓기는 형사와 범인의 영상을 교차로 제시하는 방식이 좋은 예이다. 이 방법은 극적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시간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지가 없더라도 두 개의 사건에 동시성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통일된 단위로 묶을 수 있다.

시퀀스 연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원래 이미지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다른 이미지로 연결되는 디졸브 등의 기법을 사용하면 관객들은 하나의 시퀀스가 끝나고 다음 시퀀스가 시작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러한 ㉠ 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은 관객들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쉽게 파악하고, 다음에 이어질 장면을 예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와 달리 시퀀스의 마지막 부분에 시공간이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연결하여 급작스럽게 시퀀스를 전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 부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은 관객들에게 낯선 느낌을 주고 의아함을 불러일으켜 시퀀스 연결 속에 숨은 의도나 구조를 생각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각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 시퀀스의 수가 적은 영화들은 느린 템포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사적 이야기 구조를 안정되게 제시하는 데 적합하다. 반면 길이가 매우 짧은 시퀀스를 사용한 영화는 빠른 템포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극적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특정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인물의 심리 상태 등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서사의 줄거리를 분명하고 세밀하게 전달하기 위해 각 시퀀스에서 의미를 완결지어 관객으로 하여금 작은 단위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시퀀스 전체의 연결 관계를 통해서 영화의 서사 구조를 파악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영화에 사용된 시퀀스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영화의 서사 구조와 감독의 개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28.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시퀀스의 연결 방법과 효과
- ② 시퀀스의 길이에 따른 특징
- ③ 영화의 시퀀스를 구성하는 요소와 개념
- ④ 영화의 발전 과정과 시퀀스의 상관관계
- ⑤ 씬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른 시퀀스의 종류

29.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시나리오를 분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S# 5 서영의 자취방 앞(밤) 현우의 청혼을 받아들이기 위해 집을 나서는 서영. 현관 문을 잠그기 위해 열쇠를 꺼낸다. 그때 주머니에서 현우가 준 반지가 떨어진다.
B	S# 6 길가, 편의점 앞(밤) 같은 시각 편의점 앞. 승용차가 멈추고 서영을 만나기 위해 현우가 내린 후, 서영의 집이 있는 골목길로 들어선다.
C	S# 7 서영의 자취방 앞(밤) 반지가 떨어진 것을 모르는 서영. 행복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본다. 잠시 후 문을 잠그고 집을 나선다.
D	S# 8 서영의 자취방 앞(밤) 서영의 자취방 문 앞에서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발견한 현우. 슬픈 표정으로 전화를 꺼내 문자를 보낸다. 대답 잘 들었어요. 잘 지내요. 전화기의 전원을 끈다. (디졸브)
E	S# 9 사무실 안(낮) (자막) ‘2년 후’ 활기찬 분위기의 사무실.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들과 동떨어져 홀로 컴퓨터를 바라보며 서류를 정리하는 서영.
F	S# 10 사무실 안(밤) (자막) ‘한 달 후’ 퇴근하는 사무실 사람들. 혼자 남은 서영. 여전히 자신의 컴퓨터를 바라보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 ① A와 B는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교대로 제시하여 시각적으로 통일된 단위로 묶고 있다.
- ② A부터 D까지는 ‘서영’이 ‘현우’와 헤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퀀스로 볼 수 있다.
- ③ E에 사용된 자막은 A와 C의 사건에 동시성을 부여하는 시간 표지에 해당한다.
- ④ D에서 E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E는 새로운 시퀀스의 시작에 해당한다.
- ⑤ E와 F의 연결은 시간의 흐름을 짧은 장면으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다.

3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사건의 인과 관계를 분명하게 제시할 때 사용할 수 있겠군.
- ② ㉠과 ㉡은 모두 드러내고자 하는 서사적 의미를 명확하게 완결 지을 수 있는 방법이겠군.
- ③ ㉠은 ㉡에 비해 관객에게 친숙한 내용을 낯설게 전하기에 적합한 방법이겠군.
- ④ ㉡은 ㉠과 달리 디졸브와 같은 다양한 편집 기법을 활용하겠군.
- ⑤ ㉡은 ㉠에 비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한 관객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때, 전 승상의 아들로 태어난 장국진은 달마국의 침입으로 어려서 부모와 이별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다. 그 후 여학도사의 가르침을 받고 장원급제하여 계양(이 부인)과 혼인한다. 달마왕이 재차 명나라를 침입하자 국진이 이를 막기 위해 나섰으나 병이 들어 위기에 처한다. 이때 이 부인이 남장을 하고 전장으로 달려가 국진을 돕고 그의 병을 치료한다.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는 국진의 회복으로 명나라 진영에 새로운 변화가 왔음을 능히 알 수 있더라. 두 도사는 병세로 인해 진문을 굳게 닫고 있던 국진이 회복하여 싸우러 나오리라는 것을 벌써부터 훤히 알고 있었더라.

도사들은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도 이 부인의 정체를 알아보는 못하는 듯하더라. 그러나 그들의 포위를 해치고 나가는 용감한 태도로 보아 천하의 명장이요, 혹시나 여학도사가 보낸 장군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더라. 더구나 이 알 수 없는 장군이 명나라 진에 들어가 국진의 병을 고쳐 주었으니, 그 재주의 비범함은 틀림없다고 짐작하더라. 이에 도사들은 진세를 바꾸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주장하더라.

이렇게 하여, 달마왕과 천원왕은 포위진을 뜯어 자기의 군사를 원래의 진영으로 다시 정리하더라. 이런 다음 천원왕은 예의 용천금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호통을 치면서 달려 나가더라. 이에 국진과 이 부인은 서로 나가겠다고 한동안 승강이를 벌였으나, 국진은 이 새로운 사촌 처남의 열의에 어쩔 도리 없이 양보하더라.

이 부인은 천원왕과 마주 싸우니, 보이지 않는 선녀들이 비호한 이 부인의 대담무쌍한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격찬을 불러일으키게 할 정도라. 그것을 보고 누가 이 부인을 감히 여자라고 말할 것인가. 따라서 국진이 이 부인을 자기의 처남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

이 부인은 천원왕과 같은 천하 명장을 고양이와 쥐를 잡듯하니, 이를 보는 국진으로서는 그 통쾌한 솜씨에 자신도 모르게 탄복할 따름이더라.

이러한 놀라움과 찬탄은 적진에서도 마찬가지라.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는 흥분해서 바라보고 있을 정도였고, 그중에서도 오금도사는 천원왕의 위협을 간파하고는 재빨리 징을 쳐 그를 돌아오게끔 하더라.

땀을 흘리며 지쳐 돌아온 천원왕은 자기의 피로도 잊은 채 적장을 칭찬하기에 정신이 없더라.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부인은 국진보다 몇 배나 더한 신출귀몰(神出鬼沒)한 명장이더라.

날은 캄캄하여, 이튿날 동이 트기도 전에 천원왕은 어제의 분패를 씻으려 나서자, 달마왕이 그를 밀어내고 앞질러 적진으로 나아가더라. 이에 이 부인이 그들 앞으로 나서니, 달마왕이 이 부인을 막아 격전을 벌이더라.

서로의 싸움은 한동안 승패 없이 이어진 듯도 하니 좋은 적수를 만난 것 같기도 하더라.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국진과의 싸움에서처럼 달마왕은 말에서 떨어져 하마터면 이 부인의 비린도에 맞아 머리통이 부서질 뻔하더라. 이것을 본 천원왕이 서둘러 구출하여 제 진으로 돌아가더라.

그런 후, 격분한 천원왕은 급히 말을 몰아 이 부인과 싸우더라. 얼마간 싸웠을 때, 천원왕의 용천금이 허공에서 번쩍하고 불이 나는 듯하더니, 그는 온힘을 다하여 용천금을 내리치더라. 이

때문에 이 부인의 비린도가 반 가량 부서지더라.

이 유일한 무기를 잃었으니 이 부인은 이제 어찌할 것인가? 그러나 이 부인의 비범한 재주는 이를 뛰어넘고도 남을 만하더라. 이 부인은 남은 비린도를 어루만지며 입 속으로 주문(呪文)을 외우자 비린도가 칠척 장검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천원왕은 싸울 기력을 잃고 말았으니, 적장의 비범한 재주에 놀라 하염없이 무릎을 꿇고 빌고 싶을 정도더라.

장대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오금도사와 백운도사가 각각 최후의 그들의 유일한 무기인 물병과 화전을 손에 내어 들더라. 백운도사가 필사의 힘을 다하여 먼저 적장을 향해 화전을 흔드니, 화전이 대번에 불로 화하며 이 부인을 감싸더라. 이를 보는 백운도사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하더라.

다음 순간, 놀랄 만한 일이 그들 앞에 일어나더라. 이 부인은 불에 싸이자 선녀를 명하여 폭포수를 내려 이 불을 끄라고 하달(下達)하니, 두 선녀는 허공에 솟아올라 폭포수를 쏟아 내더라. 이에 불도, 화전도 쓰일 바 없으며 폭포수에 간 곳조차 없더라. 이를 본 오금도사가 이 때라고 생각하고 물병을 기울더라. 그 결과 순식간에 홍수가 되어 명나라 진영으로 그 물은 흘러가니, 황하의 홍수도 이토록 거창하다면 우임금의 구년치수(九年治水)*를 애초부터 단념시켰을지 모를 일이라.

이 부인은 다시 선녀를 불러 이 물을 적진으로 돌리라고 명하니 두 선녀는 순식간에 그것을 바다로 만들어 적진으로 향하게 하니, 달마국의 백만 군사와 천원국의 이백만 군사는 삼시간에 형체조차 찾을 길 없이 바닷물에 쓸려 가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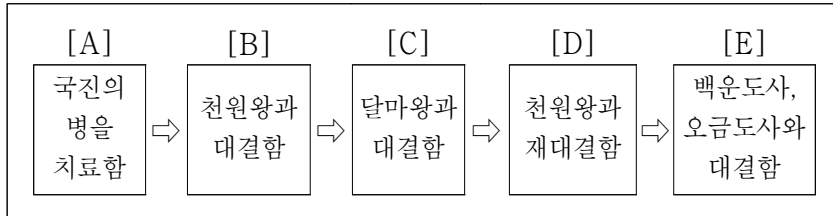
이에 국진은 천원왕을 뒤쫓고, 이 부인은 달마왕을 뒤쫓아 달려가더라.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를 비롯하여 술한 도사들은 제각기 술법을 다해 이들을 막으며, 두 왕을 멀리 화룡산으로 보호해 피하더라. 이로써 그들은 ㉠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더라.

— 작자 미상, 「장국진전」 —

* 구년치수(九年治水) : 9년 동안 홍수를 다스림.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② 꿈을 삽입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다.
 - ④ 사건의 빠른 전개를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장면에 대한 과장된 서술을 통해 비극성을 강화하고 있다.

32. 다음은 ‘이 부인’을 중심으로 윗글의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달마왕’과 ‘천원왕’이 진세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
② [B]와 [C]를 통해 ‘이 부인’이 전쟁을 하는 명분이 드러난다.
③ [B], [C]와 달리 [D]에서는 ‘이 부인’의 일시적인 위기가 나타난다.
④ [B]~[D]의 결과로 [E]에서 ‘백운도사’와 ‘오금도사’가 최후의 방책을 사용한다.
⑤ [B], [E]에서 ‘이 부인’이 승리하는 것은 초월적 존재와 관련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조선 사회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였으며 그로 인해 여성들의 활동은 많이 위축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영웅적 여성의 활약상이 두드러진 소설은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 ① ‘이 부인’이 남장을 하고 남편을 대하는 것을 통해 ‘국진’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했음을 알 수 있군.
② ‘이 부인’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 당시의 여성에게 자아실현 기회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③ ‘국진’이 자신의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함을 통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지위가 변화했음을 추측할 수 있군.
④ ‘이 부인’이 비범한 능력으로 영웅적인 활약을 하는 모습을 통해 당대 여성들은 현실에서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겠군.
⑤ ‘국진’이 적장과의 싸움에 ‘이 부인’이 나서서 것을 만류하는 행동을 통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졌던 제약을 짐작할 수 있겠군.

34. ㉠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한자성어는?

- ① 속수무책(束手無策)
② 방약무인(傍若無人)
③ 각골난망(刻骨難忘)
④ 수수방관(袖手傍觀)
⑤ 연목구어(緣木求魚)

-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범수는 아까 눈독 들인 금비녀를 빼어 손바닥에 놓고 출씩거리보며 묻는다.

점원이 그것을 받아 저울에 달고 있는 동안에 범수는 다른 놈을 두어 개 빼어가지고는 어림하는 듯이 양편 손바닥에 올려놓고 출씩거리본다.

이것이 기회인 것이다.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하려고 다뼉 긴장이 되어서 점원이

“닷 돈 두 푼쫘입니다.”

하는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했다.

점원이 저울질을 하는 잠깐 동안에 손 빠르게 한 개를 요술하듯이 소매 속에든지 어디든지 감추었어야 할 것을 막상 닥뜨리고 보니 범수에게는 그러한 재치도 없고 기술도 없으려니와 또한 담보의 단련도 없다.

첫 시험은 실패를 하고 그 답에는 가락지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았다.

그러나 역시 실패를 하고 말았다.

그는 점원의 멸시하는 시선을 뒤통수에 받으면서 금은상을 나와 화신 앞으로 건너왔다. 그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 보통학교부터 쳐서 대학까지 십육 년이나 공부를 한 것이 조그만한 금비녀 한 개 감쪽같이 숨기는 기술을 배우니만도 못하다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고 그는 그 뒤를 생각하다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의 라스폴리니코프가 도끼를 높이 들어 전당쟁이 노파를 내리찍는 장면을 생각하고 오싹 등허리가 추워 눈을 감았다.

그는 허우대가 이만이나 하고 명색이 대학까지 마쳐 소위 교양이 있다는 사람으로 도적질을 하려고 한 자기를 나무라보았다.

㉡ 그러나 그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항거를 한다.

도적질을 하는 것이 왜 나쁘냐고.

이 말에는 자기로서도 자기에게 대답할 말이 나오지 아니한다.

아니, 도적질을 하는 것이 나쁘고 악하고 하다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더럽다. 치사스럽다.

이 해석이 마침 자기의 비위에 맞았다. 그래 그는 싱그레니 혼자 웃었다. 그러면서 마침내

‘뺏기지 않는 놈은 도적질할 권리도 없다.’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중략>

“웬일야?”

범수는 대뜸에 선 채 이렇게 물었으나 아내는 눈물 젖은 눈을 들어 원망스럽게 한 번 치어다보고는 도로 엎드려 울기만 한다.

영주는 폭포같이 말을 쏟뜨려놓고 싶어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다만 남편이 원망스럽고 노여워 울음이 앞을 서는 것이다.

범수는 마루로 피해 나오는 종석이를 흘겨보며

“너 요놈, 또 어머니 말 아니 듣구 싸웠든지 그랬구나?”

하고 나무람 반 물었으나 아이 역시 대답이 없다.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번쩍 쳐들더니 범수를 치올려보며

“무슨 낫으루 자식을 나무래요? 다 에미 애비 죄지.”

하고 악을 쓴다.

“아니, 그건 무슨 소리야?”

“자식을 굶겨노니 안 그럴까?”

“아니 글썄, 왜 그러는 거야. 굶는 게 오늘 처음이요, 또 우리
뿐이게 새삼스럽게 이러나?”
“그러니까 자식이 도적질을 해두 괜찮단 말이요?”
“도적질?”
“그렇다우…… 배가 고파서 두부장수 두부를 훔쳐먹다가 들켰
다우. 자, 시언허우.”
범수는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치밀어올랐다.
㉠ 그는 무어라고 아이를 나무라려다가 문득 자기가 오늘 낮에
겪던 일이 선연히 눈앞에 나타나 그만 두 어깨가 축 처져버렸다.
그는 종석이를 흘겨보며
㉡ “흥! 이놈의 자식 승어부(勝於父)*는 했구나.”
하고 두런거렸다. 영주도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 못
했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영주는 종태만이라도 근처의 사립학교에나마 보낸다고 데리고
나섰다. 종석이까지 데리고 간다고 밤늦게까지 우기며 다투었으
나 범수는 듣지 아니하고 정 그러려거든 작은아이 종태나 마음
대로 하라고. 그래 말하자면 두 사람의 소산을 둘이서 반분한
셈이다.
종태를 데리고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범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 “두구 보자. 네 방침이 옳은지 내 방침이 옳은지.”
뒤미처 범수는 종석이를 데리고 써비스 공장으로 최씨를 찾아
갔다.

- 채만식, 「명일(明日)」 -

* 승어부(勝於父) : 자식이 아버지보다 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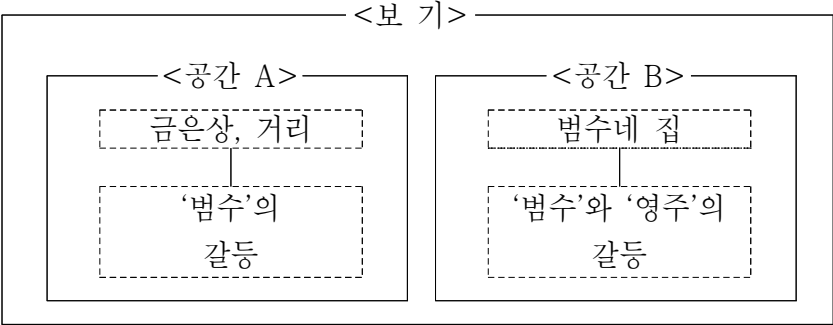
3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적 묘사를 통해 공간적 배경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사건의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친근감을 주는 말투를 통해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⑤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여 그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36~3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채만식의 「명일(明日)」은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취업도 하지 못한 채 급기야 도적질까지 하려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 계층의 무기력한 삶을 풍자하고 있다.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아내와 달리 주인공 ‘범수’가 아들을 공장에 보내려는 것은, 식민지 시대에서의 교육의 무가치함에 대한 지식인의 고뇌와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지식이 무가치하다는 인물의 생각을 통해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를 엿볼 수 있군.
 - ② ㉡ : 도적질이 나쁘지 않다고 합리화하는 인물의 모습에서 식민지 현실의 모순으로 인한 인물의 혼란한 인식을 엿볼 수 있군.
 - ③ ㉢ : 아들을 나무라지 못하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가정의 무기력한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 : 도적질을 한 아들이 오히려 아버지보다 낫다는 말을 통해 식민지 지식인의 자조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⑤ ㉢ : 자신의 방침이 옳다고 여기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교육의 무가치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념을 엿볼 수 있군.

37. <보기>는 윗글에 나타난 공간을 중심으로 갈등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공간 A와 공간 B에서의 갈등은 사회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
- ② 공간 A의 ‘금비녀, 가락지’와 공간 B의 ‘두부’는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 ③ 공간 A의 갈등이 공간 B의 갈등으로 전환되면서 범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다.
- ④ 공간 A에서의 갈등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공간 B에서의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 ⑤ 공간 A에서의 갈등은 공간 B에서 자식의 교육 문제에 대한 범수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드냐
이시라 헛더면 가라마는 제 구티여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헛노라
— 황진이 —
- (나) 임이별 하울저기 저는 나귀 한치 마소
가노라 돌쳐 설제 저난 거름 안이런덜
꽃 아리 눈물 적신 얼굴을 엇지 자세이 보리요
— 안민영 —
- (다) 내게는 원수가 업서 개와 닭이 큰 원수로다
벽사창 깃픈 밤에 품에 들어 자는 님을 자른 목 느르혀 해
해 쳐 울어 닐어 가게 하고 적막 중문(重門)에 왔는 님을 물
으락 나으락 캉캉 즈저 도로 가게 하니
아마도 유월유두 백종(百種) 전에 스러져 업씨하리라
— 박문옥 —

3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고 있다.
- ③ 임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을 담고 있다.
- ④ 이별로 인한 삶의 무상감이 나타나고 있다.
- ⑤ 힘든 상황을 낙천적인 자세로 극복하고 있다.

39.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드냐’는 영탄과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회한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의 ‘제 구티여’는 행동의 주체를 중의적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의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화자의 행위와 심리를 대비시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저는 나귀 한치 마소’는 다리를 절며 느리게 걷는 ‘나귀’를 통해 임과 함께 있는 시간을 연장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담아내고 있다.
- ⑤ (나)의 ‘꽃 아리 눈물 적신 얼굴’은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애타는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40.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행궁견월상심색(行宮見月傷心色)*의 달만 비쳐도 님의 생각
춘풍도리화개야(春風桃李花開夜)*의 꽃만 피어도 님의 생각
야우문령단장성(夜雨聞鈴斷腸聲)*의 비 죽죽 와도 님의 생각
추절(秋節)가고 동절(冬節)이 오면 명사벽해(明沙碧海)를
바라보고
뚜루를 깰룩 울고 가는 기러기 소리에도 님의 생각
얹어 생각 누어 생각 생각 끝일 날이 전혀 없어
모진 간장의 불이 탄들 어느 물로 이 불을 끌거나
아이고 아이고 내 일이야
— 작자 미상, 「춘향가」 —
- * 행궁견월상심색: 행궁에서 달을 보니 사뭇 구슬픈 느낌이 들.
* 춘풍도리화개야: 복숭아꽃, 오얏꽃이 활짝 핀 봄의 으스스달밤.
* 야우문령단장성: 밤비에 울리는 풍경소리가 간장을 도려내는 듯함.

- ① (다)와 <보기>는 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다)와 <보기>는 유사한 구조를 지닌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군.
- ③ (다)와 달리 <보기>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보기>와 달리 (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보기>와 달리 (다)의 의성어는 화자에게 원망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넙은 갸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넙은 갸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갸습니다.
㉡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
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갸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
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갸습니다.
㉢ 나는 향기로운 넙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넙의 얼굴
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
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 아아, 넙은 갸지만 나는 넙을 보내지 아니하갸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넙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넙의 침묵」 -

(나)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베갯말에
맘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쉴쉴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
노신*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쉴쉴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

* 노신(魯迅): 루쉰, 중국의 문학가이자 사상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며 가족 제도의 폐해를 폭로하거나 중국의 의식 개혁을 주장하는 등 사회적 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들을 저술함.

41.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실 초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부정적 상황이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 ③ 억압적 현실에 대한 비애가 드러나 있다.
 - ④ 대상에 대한 원망이 표면에 나타나 있다.
 - ⑤ 과거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반성이 나타나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임을 잃은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대비적 의미를 지닌 시구를 통해 화자의 좌절감을 그려내고 있다.
 - ③ ㉢: 연쇄법을 사용하여 임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접속어를 사용하여 이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역설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김광균의 「노신」은 시인으로서 어렵게 살아온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예술가로서의 신념을 흔드는 생활인으로서의 현실적 고통으로 인해 고뇌하던 중, 고단한 삶 속에서도 신념을 지켰던 노신의 삶을 떠올리며 위안을 얻고 있다.

- ①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는 시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드러내는 화자의 탄식이라 할 수 있군.
- ②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지나는 돌팔매’에서 화자가 그동안 견뎌왔던 생활인으로서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등불’은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노신의 삶을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군.
- ④ ‘쉴쉴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에서 예술가로서의 신념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느껴지는군.
- ⑤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에서는 노신처럼 사회의 개혁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었다. 끝없이 단념해 가는 것, 그것뿐인 것 같다. 산 너머 저 산 너머는 행복이 있다 한다. 언제고 그 산을 넘어 넓은 들로 나가 본다는 것이 산골 젊은이들의 꿈이었다. 그러나 이윽고는 산 너머 생각도 잊어버리고 ‘아르네’^{*}는 결혼을 한다. 머지 않아서 아르네는 사, 오 남매의 복(福)가진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의 수많은 아르네들은 그만 나폴레옹을 단념하고 셰익스피어를 단념하고 토머스 아퀴나스를 단념하고 렘브란트를 단념하고 자못 풍정낭식(風定浪息)^{*}한 생애를 이웃 농부들의 질소(質素)한 관장(觀葬)^{*} 속에 마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주 단념해 버리는 것은 용기를 요하는 일이다. 가계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지위를 버리고 드디어 온갖 욕망의 불덩이인 육체를 몸쓸 고행으로써 벌하는 수행승의 생애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것은 무(無)에 접(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아주 반대로 끝없이 새로운 것을 욕망하고 추구하고 돌진하고 대립하고 깨뜨리고 불타다가 생명의 마지막 불꽃마저 꺼진 뒤에야 끊어지는 생활 태도가 있다. 돈 후안이 그랬고 베토벤이 그랬고 「장 크리스토프」의 주인공이 그랬고 랭보가 그랬고 로렌츠가 그랬고 고갱이 그랬다.

이 두 길은 한 가지로 영웅의 길이다. 다만 그 하나는 영구한 적멸(寂滅)로 가고 하나는 그 부단한 건설로 향한다. 이 두 나무의 과실로 한편에 인도의 오늘이 있고 다른 한편에 서양 문명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극단 사이에 있는 가장 참한 조행(操行)^{*} 갑(甲)에 속하는 태도가 있다. 그저 얼마간 욕망하다가 얼마간 단념하고…… 아주 단념도 못 하고 아주 쫓아가지도 않고 그러한 사이에 분에 맞는 정도의 지위와 명예와 부동산과 자녀를 거느리고 영양(營養)도 갑을 보전하고 때로는 표창(表彰)도 되고 해서 한 편(篇) 아담한 통속소설 주인공의 표본이 된다. 말하자면 속인 처세의 극치다.

이십 대에는 성(盛)히 욕망하고 추구하다가도 삼십 대만 잡아서면 사람들은 더욱 성하게 단념해야 하나 보다. 학문을 단념하고 연애를 단념하고 새로운 것을 단념하고 발명을 단념하고 드디어는 착한 사람이고자 하던 일까지 단념해야 한다. 삼십이 넘어 가지고도 시인이라는 것은 망나니라는 말과 같다고 한 누구의 말은 어찌면 그렇게도 찬란한 명구나.

약간은 단념하고 약간은 욕망하고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일인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단념은 또한 처량한 단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술에 있어서도 학문에 있어서도 나는 나 자신과 친한 벗에게는 이 고상한 섭생법을 권하고 싶지 않다.

‘일체(一切)냐 그렇지 않으면 무(無)냐?’

예술도 학문도 늘 이 두 단애(斷崖)^{*}의 절정을 가는 것 같다. 평온을 바라는 시민은 마땅히 기어 내려가서 저 골짜기 밑바닥의 탄탄대로를 감이 좋을 것이다.

— 김기림, 「단념」 —

* 아르네: 노르웨이의 작가 비에른손이 쓴 소설 「아르네」(1858)의 주인공으로 감성적이며 먼 곳을 동경하는 젊은이.

* 풍정낭식: 바람이 자고 파도가 잔잔해진다는 뜻으로, 들떠서 어수선하던 것이 가라앉음.

* 질소한 관장: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르는 소박한 장례.

* 조행: 태도와 행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단애: 낭떠러지.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비의 방법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시선의 이동을 통해 대상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③ 우화를 제시하여 삶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글쓴이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 ⑤ 과거를 환기함으로써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45.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많은 아르네’는 욕망하다 단념해 버리는 속인들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무(無)에 접(接)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영웅의 길로 볼 수 있겠군.
- ③ ‘부단한 건설’은 새로운 것을 욕망하고 추구하는 삶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고상한 섭생법’은 적당히 단념하고 적당히 욕망하는 것으로 글쓴이가 긍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군.
- ⑤ ‘골짜기 밑바닥’은 모든 단념과 욕망을 끝낸 후 도달한 평온한 삶의 단계라 할 수 있군.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